東亞製藥(株)

81年 優秀發明大賞 受賞

文 泰 興
〈開發部 特許課〉

製造技術 先導核心企業

醫藥品産業은 존귀한 인간의 생명과 直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성과 안전성, 그리고 不斷한 기술혁신과 研究開發의 意志가 필요한 두뇌집약적 산업분야이다.

이러한 제약산업은 70년대를 거치면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여 先進外國企業과의 기술격차가 그 日淺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점차 좁혀져가고 있다.

東亞製藥 株式會社(代表理事 會長 姜信浩)는 국제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한국제약기술 발전을 先導하는 核心企業의 하나이다. 세파트린, 탈암핀, 가나마이신等 20여종의 抗生劑 및 씨스푸란, 미푸롤, 아크라시논等의 抗癌劑를 비롯하여, 화학요법제, 항결핵제, 항 Virus제, 소염진통제, 간질환치료제, 영양수액제 等 150여종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東亞製藥은 지난 84년 1,370억원의 賣出額을 기록하여 賣出規模面에서 국내 제약업계중 最高頂上의 지위를 계속 固守하고 있다.

탈암피실린 世界 3번째 開發

78年 세계에서 세번째로 탈암피실린(Talampicillin) 合成에 成功하였으며, 81年에는 「β~락탐계 抗生物質 製造方法」의 特許를 획득하여 優秀發明大賞을 수상한 바도 있다.

이 β~락탐계 항생물질의 제조방법 발명은 東亞製藥 研究陣이 거둔 최대의 성과로서 同社의 合成技術이 세계적 水準에 접근하였음을 立證한 증거이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β~락탐系抗生物質은 대부분 人體內 吸收率이 낮아 副作用이 많았으나, 本 β~락탐계 항생물질은 經口投與로 위장에서의 흡수율이 우수하여 血中濃度가 높아 殺菌能力이 강한 한편, 副作用이 적은 장점을 갖고 있는 抗生劑이다.

東亞製藥은 工業所有權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낮았던 70년대 초부터 特許專擔部署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즉 연구과제의 선정에서 이와 관련된 특허문헌조사, 연구성과의 特許出願에 이르는 연구개발 전체과정에 특허전담 요원을 參與시키고 있다. 연구원과 특허전담 요원으로 組織된 연구 Team을 구성, 새로운 의약품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特許管理를 동아제약 技術開發의 成敗를 左右하는 결정적 요소로 活用하고 있다.

特許課는 開發擔當理事 직속

77년 開發擔當理事 직속기관으로 발족한 特許課는 이같은 연구프로젝트의 참여는 물론 선진기술동향의 分析·評價, 特許圖(Patent Map)作成, 정보수집·관리, 공업소유권출원·등록, 보유권리침해감시 및 輸出醫藥品의 該當國家別 공

업소유권 출원·등록등 광범위한 업무를 專擔·處理하고 있다. 특히 外國企業과의 技術提携 및 導入時 공업소유권 측면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事前檢討作業을 진행, 분쟁의 가능성을 철저히 防止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특허청으로부터 높이 평가되어 1979년에 우수특허관리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의약품은 기술진보속도가 빠른 정밀화학의 중요분야로서 시장규모에 비해 特許情報量이 많으므로 필요정보의 迅速한 入手·活用이 중요한 과제로 提起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제약에서는 특허관리요원의 정예화·전문화를 추진하는 한편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정보의 신속한 입수체제를 確立해 나가고 있다.

美國特許 7만건을 비롯, 英國의 特許정보수집·제공회사인 더웬트(Derwent) 特許資料 約 32만건 및 의약기술관계정기간행물·日本 및 國內公報類等의 특허기술정보 자료를 보유한 東亞製藥에서는 이들 자료의 抄錄化를 이미 完了했으며, 또한 美國 록히드社의 데이타 베이스(Data Base)인 다이얼로그(Dialog)를 국내 다콤(DACOM) 社를 경유하여 온라인으로 活用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관련분야의 모든 出願公告商標 및 登錄商標에 대한 電算化를 완료하여 商標檢索등에 利用하고 있다.

工所權 登錄 1,033件

同社에서는 76년 職務發明補償制度를 제정한데 이어 79년에 이를 改正하여 보상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80년에는 職務發明審議小委員會를 신설, 등록보상·실시보상·처분보상 등을 실시함으로써 종업원들의 발명 및 기술개발 참여를 적극 유도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發明支援施策의 運營결과 공업소유권의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 2月현재 공업소유권의 등록건수는 特許 19件(國內 16件, 外國 3件), 實用新案 3件, 意匠 16件, 商標 825件(國內 805件, 外國 20件)이며 출원하여 계류중인 건수는 特許 9件, 實用新案 2件, 商標 130件등 총출원·등록건수는 現在 1,033件에 이르고 있다.

同社는 공업소유권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특허전담요원의 자질향상등을 위해 特許協會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적극 參與하고 있으며, 최근 크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物質特許制度導入에 대비한 여러가지 대응태세를 완비하는 것도 특허과의 중요업무중의 하나이다.

專擔要員 美·日 研修

人間生命을 다루는 두뇌집약산업인 제약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을 계속하고 있는 東亞製藥에서는 그간의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지난 77년 의약품 연구·개발의 중추기반이 될 中央研究所(소장 : 閔信弘박사)를 設立하였다.

서울 용두동에 위치한 연구소에는 현재 3名의 博士를 포함하여 58名으로 이루어진 强力한 研究陣이 合成·微生物·分析·劑製·藥理毒性 生體利用度等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의약품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본 연구소에서는 현재 3명의 연구원을 美·日 양국에 파견,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시키고 있으며, 수시로 연구원들을 海外로 파견하여 전문기술 습득에 온 精誠을 쏟고 있다.

50여년에 걸친 의약품 생산을 통해 튼튼한 기술기반을 쌓아 올린 東亞製藥에서는 副作用이 적고 치료효과가 높은 의약품개발을 계속하는 한편 尖端技術로 세계의 주목을 모으고 있는 유전자공학기술을 응용한 신제품개발에 연구노력을 集中시켜나가고 있으며, 이에따라 同社의 主工場이 있는 안양에 새로이 研究所를 건설할 계획이며, 금년하반기에 着手하게 된다.

本 研究所는 연건평 1,5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에 100여명의 연구진이 수용될 수 있으며, FT-NMR, FT-IR, Ultra-Centrifuge 등 초정밀 분석기자재들이 완비될 것이다.

東亞製藥 特許課는 이러한 研究 System의 확충에 따라 특허정보자료의 電算 System 確立과 尖端技術研究에 대한 지원체제강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 이를 實現하여가고 있으며, 분쟁의 조정·처리, 타부서 의뢰자료의 제공, 발명심의위원회 운영, 재열기업특허업무지원등 통상적인 특허관리업무처리능력도 높여갈 계획이다.